

# 민생안정 위해 행정력 총동원

### 익산시, '민생안정 대책반' 가동... 지역경제 회복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신속 추진

익산시가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 대책반'을 발 빠르게 가동한다.

익산시는 7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복지와 안전, 경제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민생 안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는 △민생안정기획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주요 민생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실질성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복지취약계층·농업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펼친다.

또한 시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 부서별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추경 편성 방침도 확정됐다. 시는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 사업 등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핀셋 편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약 18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 업체 중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 내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2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한다.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경우 최대 3%의 이자를, 839점 이하의 최대 4%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직접 현장 행정을 나서기도 했다. 정 시장은 전날 큰 화재가 발생한 석압동의

특장차 부품 공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폈다. 이어 남성 의류 등을 제조하는 향도 중소기업 ㈜미첼을 찾아 기업 경영 여건과 인력 수급, 금융·관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시장은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인들은 시장 환경개선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민생안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생활 밀착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도로 위 폐철길, 더이상 방치는 안돼"

### 한경봉 군산시의원, 제27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32, 도로 위 폐철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일제강점기 수탈 목적으로 개설된 군산선 철도는 2011년 이후 이용이 거의 없었고, 2022년 공식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 위 폐철길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진행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 과 연계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현재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경봉 의원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 중에는 여전히 차량이



한경봉 의원

주행하는 도로가 있으며, 이곳에 방치된 폐철길로 인해 차량은 물론 탑승자들까지 '달걀 거름'을 경험하고 있다며, 200억을 들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정작 시민들이 자주 오기는 도로 위 폐철길은 그대로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철길 구간을 철거하는 작업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또는 도로를 관할하는 건설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적 미비를 지적하고, 폐철도가 있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 철거 조치 등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의 신뢰 회복 시급하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군산시의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고 운을 댄 뒤, 특히 최근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단합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그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로 들며, 폭력



서동완 의원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로, 동일한 모욕 관련 건에서는 누군가는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된 반면 본인은 출석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명시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및 존중 의무를 언급하며,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된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오히려 윤리특위가 법과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부자가족 대상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책 사각지대 경계에 놓인 부자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정책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에 1,337세대의 한부모가족이 있고 이 중 부자가족은 235세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국 113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군산시 복지시설 또한 실질적으로 모자가족만 입소가 가능



김영자 의원

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기본 사업에 의존하고 있을 뿐, 군산시민의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부자가족은 자녀의 성장기 상호작용 문제, 교육 정보 접근성 부족, 영양 불균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군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뚝뚝빵빵, 버스 타고 군산 여행 떠난다'

### 군산시, 시티투어버스 운영 시작...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근대역사박물관서 '고군산코스' 출발

군산시가 4월부터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군산을 즐길 수 있도록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일 코스별로 1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풍부한 해설로 전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박물관 출발」 고군산코스'가 새롭게 추가되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이번 시티투어버스는 긴 이동거리로 고군산군도 관광에 어려움을 겪었던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군산시간여행코스'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군산역에서 탑승하고 사전 예약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운행된다.



버스에 승차하면 월명동 일대의 시간여행마을에서 끝목마다 숨어있는 근대문화 유산을 둘러본 후 고군산군도로 이동하여 선유도 해수욕장과 장자 스카이워크, 해안 데크 등 아름다운 경관을 탐방할 수 있다.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고군산시간여행코스도 있다. 매주 토요일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버스가 익산역에서 출발한다. 사전 예약 인원은 10명으로 고군산시간여행코스

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유공자, 도내 거주 다자녀가정의 경우 50% 할인된다. 박물관에서 출발하는 '고군산코스' 요금은 2,500원으로 부담 없이 고군산군도를 관광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군산시 문화관광 누리집 www.gunsan.go.kr/tour)와 전화(☎010-2735-3777)로 할 수 있고, 익산역 출발 노선은 코레일 기차여행 누리집 또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063-855-771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리하고 즐겁게 근대문화와 섬이 어우러진 군산을 여행하면서 군산의 매력과 함께 일상의 활력을 얻어 가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재단